

# ‘위기 속 빛난 리더십’ 송종욱 광주은행장 연임

### 코로나시대 지역민 상생 앞장...매년 최대 실적에 세 번째 신임 지방은행 최고 안전·건전성 확보...디지털 금융 등 신사업 박차

최초 자행 출신으로 광주은행장에 오른 송종욱(60·사진) 행장이 2년 동안 광주은행을 더 이끌게 됐다.

광주은행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JB금융지주 자회사 CEO(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단독 추천된 송종욱 현 행장을 연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송 행장은 3월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공식 선임되며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다.

지난 2017년 9월, 광주은행 공채 출신 첫 행장으로 선임된 송 행장은 1년 6개월 동안 고객중심·현장경영으로 광주은행을 한 단계 도약시켰으며 2019년 3월 한자재 연임했다.

이후 탁월한 경영 능력과 리더십으로 매년 당기 순이익 기록을 갈아치우는 광주은행의 역사를 새로 썼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역민과의 상생과 동행을 통해 광주은행이 지역 경제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매진했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9년 당기순이익 1733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으며 지난해는 3분기까

지 1377억원을 달성했다.

자기자본이익률, 고정이익여신비율, 연체 비율 등 주요 지표도 지방은행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기록했다.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지방은행 부문 3년 연속 1위, 상생카드 등 지역화폐 활성화, 지역 접목을 확대 등은 지역민을 물론 임직원의 두터운 신임과 호평 속에 이룬 성과다.

광주은행은 코로나19 여파와 3차(저금리·저성장·저물가) 시대에서 눈에 띄는 경영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광주와 전남을 대표하는 은행”이라는 자부심은 그의 경영 이념인 지역 밀착경영, 고객 중심 경영, 이익 이상의 가치 추구 등에서 잘 드러난다.

이 같은 경영이념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민을 위한 각종 금융지원, 사회공헌 중심 경영활동이 출발했다.

광주은행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260억원을 출자하며 3대 주주로 참여했고, 지자체 금고 유치에서 목포·순천시를 신규 유치하며 저력을 과시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은 지자체와 사



회복지시설 등에 마스크 지원부터 7억원 넘는 긴급 구호 성금 전달, 소상공인·자영업자 4000억원 특별 지원을 펼쳤다.

지역 상생 경영 외에도 디지털 금융과 해외 진출

사업에도 두각을 나타냈다.

차세대 전산시스템 오픈과 모바일 웹 금융, 로보어드바이저 도입 등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지난해 4월에는 국내은행 최초로 베트남 증권사인 JB증권 베트남(JBSV)을 인수하는 등 해외 진출의 교두보도 마련했다.

광주은행은 포용금융과 생산적 금융 주력, 수익성과 비용 효율화를 통한 책임경영 기반 구축, 선제적 자산 건전성 관리, 창의적이고 활력 있는 문화 조성 등을 새해 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순천교와 전남대 대학원을 졸업한 송 행장은 1991년 입행한 뒤 순천동지점장, 서울지점장을 거쳐 수도권 영업부행장, 영업전략 총괄 부행장을 지냈다. 탁월한 진화력과 추진력 등으로 영업 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을 발휘하며 ‘영업맨’으로 통한다.

송 행장은 “중책을 맡겨준 지역민과 고객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금융정보기술(핀테크) 업계에서 치열한 경쟁환경이 예상되지만 변화와 혁신으로 무장해 내실있는 실적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지방은행 최고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갖춘 선도은행으로 도약하고 지역과 상생하고 지역민과 동행하는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상생 경영 외에도 디지털 금융과 해외 진출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아파트 정전땀 123 전화 한전, 임시 전력공급 대책 마련

주말 새 강력한 한파로 아파트 정전이 속출하면서 한국전력은 정전이 발생하면 한전 고객센터(123)에 전화해 복구지원과 임시 전력공급을 요청하라고 10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 12월부터 동계 안정적 전력공급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아파트 전기설비 문제로 정전이 발생한 경우 필요하면 비상 발전차를 지원하는 등 임시 전력공급이 가능하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현재 차단기 불량 3건, 변압기 불량 1건, 전기설비 침수 9건 등의 원인으로 고압 아파트 정전이 총 17건 발생한 것으로 한전 측은 파악했다.

한전에 따르면 아파트 전기설비는 차단기, 변압기 등 다양한 기자재들이 연결돼 세대별 전기를 공급하고 있어 안전관리자의 기자재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변압기 용량이 부족한 아파트는 겨울철 난방부하 증가에 따른 아파트 변압기의 과부하로 정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히 살펴야 한다.

한전 관계자는 “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 점검 및 시간대별 부하를 확인하고, 과부하가 예상될 경우 세대별 절전을 안내하는 등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기설비는 가급적 상수도시설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해 침수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은 고객이 원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하면 아파트 노후 변압기 교체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포스트 코로나’ 대비 맞춤형 광산업정책

### 광산업진흥회, 미래 유망 분야 기업 협의체 구성 등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올해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시대에 맞춰 수요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광융합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과 소통을 강화, 기업들과의 소통의 장을 정례화하는 등 새로운 수요 창출에 주력하기로 했다.

광융합산업 미래 유망 분야인 광소재와 마이크로 LED, 광의료기기 등 분야의 대·중·소기업간 협의체를 구성, 규제개선사항 발굴 등 공동적인 문제해

결과 신제품 개발 등에 나서고 대형 연구개발(R&D) 과제 발굴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관련 중소기업을 위한 시제품 제작과 제품고급화, 온라인 OJT교육 콘텐츠 제작, 신규 NCS(국가직무표준) 및 NCS 활용 기업 활용 컨설팅 등도 확대한다.

신규 지원 사업으로는 검색엔진·SNS를 통한 홍보, 유튜브 등 온(ON)택트 기업 수요자 맞춤형 지원사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광융합 기술 주요 정책과 발전방안 수립지원, 세액공제 및 관세 감면 지원 품목 등을 발굴하고 정부의 중장기 예산지원을 확대해 기업성장 및 자생력 강화에 힘을 계속한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온·오프라인과 현실·가상을 넘나드는 온택트 마케팅 플랫폼을 구축한 전시회도 열 예정으로, 오는 8월 열릴 ‘2021 광융합산업전시회’도 라이브 커머스 전시회 형태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조용진 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로 시련이 큰 상황에서 시제품 제작 등 단계적 처방보다 기업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온라인·비대면 기업 맞춤형 지원 확대 등 공격적인 전략을 마련해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친환경 티백 허브차 드세요  
광주·전남 9곳을 포함한 롯데마트는 디저트 브랜드 ‘스윗어’를 자체적으로 내놓고 옥수수 전분 소재인 폴리락타이드(PLA)로 주머니를 만든 허브차 4종을 판매하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 로또복권 (제945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9	10	15	30	33	37	26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765,554,491	13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53,878,424	71			
3	5개 숫자일치	1,536,293	2,490			
4	4개 숫자일치	50,000	124,224			
5	3개 숫자일치	5,000	2,120,882			

/백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 거리두기 3단계 상향편 위약금 없이 예약 취소

올해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은 사전에 평균 영업기간을 알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은 3개월에서 최소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 같은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에 담겼다.

프랜차이즈 본부는 이달부터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 제공하는 정보 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매출 부진 때 가맹본부의 지원내용을 적어야 한다.

공정위는 모바일 상품권 표준약관을 만들어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두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등을 알리도록 했다.

도서·산간 지역에 불는 추가 배송비도 결제 전에 알 수 있게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인상시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해결조항도 마련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이농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 2021년 1월호

12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 5060 新중년 인생 3모작을 꿈꾼다

백세 시대 남은 시간을 새롭게  
배움으로 새 도전의 힘을 얻는다  
- 도전의 성취 신중년  
- 유튜브 스타 신중년

기획-TREND 2021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면  
“거침없이 피보팅하라”

문화를 품은 건축물 ⑤  
한옥의 넉넉함 품은 화이트 큐브  
아모레퍼시픽미술관

클릭, 문화현장 ④  
시민과 미디어아트 만나는  
양림동의 새 복합문화공간  
이이남스튜디오

김정운의 바우하우스 이야기 ⑥  
주관성 강조한 고티에 색채론 담은 칸딘스키의 색채론

## 에향 초대석

### 치유의 글 쓰는 정신과 의사 문요한

“몸과마음이 유연해져야 합니다”

문항이 숨쉬는 문학관을 찾아서  
기형도의 성정 느껴지는 공간  
광명 기형도 문학관

화제의 전시  
아시아문화국제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

화제의 문화공간  
아마추어 예술인을 위한 공간  
‘벨라 151’

철학자 최진석과 책 읽고 건너가기

왕인의 ‘예술가의 한끼’ ⑧  
‘화단의 테러리스트’ 황창배,  
요리도 ‘카레 튀김짜개’ 파격

베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 ⑥  
스크린 스타들 드라마 복귀  
열풍 까닭은?

화제의 문화현장  
세계인이 감탄한  
제주 ‘생각하는 정원’

에향이 만난 이 사람  
성실함으로 주목받는 KIA 볼펜포수 이동건

사목사님 담도 한 바퀴루장성

경의 문향 사책,  
자서 힐링 여행

트리킹 활동과 대표 서원  
레드향 시인 머스킷